

해외여행족 공략 특화상품 통했나 현대카드 연회비 수익 '업계 첫 1위'

현대카드 1분기 연회비 수익 792억
지난해 동기 대비 19% 증가 '1위'
신규 회원도 13.3만명 늘어 최고
아멕스카드 프리미엄 전략 주효

올해 신규 회원을 대거 유치한 현대카드의 연회비 수익이 이례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해외여행족을 공략해 출시한 상품이 소비자들의 '리브콜'을 받으면서다. 현대카드의 연회비 수익이 업계 선두를 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현대카드의 연회비 수익은 792억원이다. 지난해 동기(665억5700만원) 대비 19% 증가했다. 그간 현대카드의 연회비 수익은 업계 3~4위를 차지했지만 '업계 1위' 타이틀을 확보했다. 1분기 전업 카드사 7곳의(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연회비 수익은 평균 46억2800만원 상승했으며 현대카드의 연회비 수익 증가액은 126억4500만원이다.

공격적인 영업이 수익 확대에 이어

졌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분기 현대카드가 확보한 신규 회원은 13만3000명이다. 카드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4분기를 시작으로 해외여행족을 꾸준히 공략했고 올 1분기에도 여행 특화 상품을 출시했다. 해외여행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유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현대카드의 개인신용카드 해외송인 잔액은 7906억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연회비 상승을 견인한 상품은 '현대아멕스카드에디션2'와 '대한항공카드 시리즈'다. 아멕스카드는 지난 2월 개편을 통해 새롭게 공개했다. ▲더 플래티넘 ▲더 골드 ▲더 그린 등 3종으로 구성했으며 연회비는 1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다. 전 세계 호텔 1500곳에서 100달러 상당 바우처 및 조식 무료 이용권, 퇴실 시간 연기 서비스 등을 무료로 누릴 수 있다.

특히 아멕스카드의 프리미엄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었다는 설명이다. 아멕스카드는 연예인, 인플루언서들의 사용장면이 미디어에 노출된 탓에 소비

자들 사이에서는 '프리미엄 카드'의 대명사로도 꼽힌다. 일반 신용카드 대비 높은 연회비로 출시했지만 해외여행을 떠날 여력이 있는 소비자를 공략한 만큼 여행 업종 적립 혜택과 호텔, 라운지 혜택을 강화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소비 여력이 높은 해외여행객을 목표로 아멕스카드를 출시한 전략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남은 과제는 유입한 신규 회원의 충성도를 높이는 '특인효과' 극대화다. 카드업계가 여행 업종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만큼 지각변동 또한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올해는 업계 상위권 카드사인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도 해외여행 특화 카드를 출시하면서 여행 시장 공략에 나섰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은 소비여력이 있는 '우량차주'인 경우가 많은 만큼 반드시 공략해야 하는 소비자층이다"라며 "건전성과 기업이미지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반도건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청약 마감

1278세대, 평균 경쟁률 8.44대 1
전용 84㎡A, 최고 경쟁률 173대 1

반도건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가 전용면적 84㎡A 타입(기타경기) 최고 173대 1의 경쟁률로 청약 마감했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반도건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지난 2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총 1만105건이 접수돼 1순위 전체 7.91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5개 타입 중 2개 타입(84㎡A·84㎡B)이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고, 나머지 3개 타입도 ▲99㎡A 1.43대 1 ▲99㎡B 1.59대 1 ▲170㎡P 3.67대 1을 기록하며 세대수 이상의 1순위 청약 접수율을 기록했다.

단지는 지난 2일과 3일 진행된 청약

접수 결과 1278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1만792건의 청약이 몰려 평균 8.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전 세대 순위 내 청약을 마무리했다. 특히, 전용면적 84㎡A 타입(기타경기)은 최고 경쟁률인 173대 1을 기록했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6개동, 전용면적 84·99·170㎡ 총 1694세대 아파트 및 상업시설로 조성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9일이며, 정당계약은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분영관계자는 "일산호수공원 옆에 위치한 독보적인 입지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에 수요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증권사 CMA 수익률, 은행 파킹보다 매력적

증권사 CMA, 최고 연3.6% 수익률
우대금리 요건없고 예치금 구간 넓어

증권사 '자산관리계좌(CMA)'의 수익률이 은행권 파킹통장(고금리 수시입출금통장)을 앞지를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예금 금리 인하 추이와 증권 시장 불안정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이 늘어가는 가운데 CMA가 주요한 자금 운용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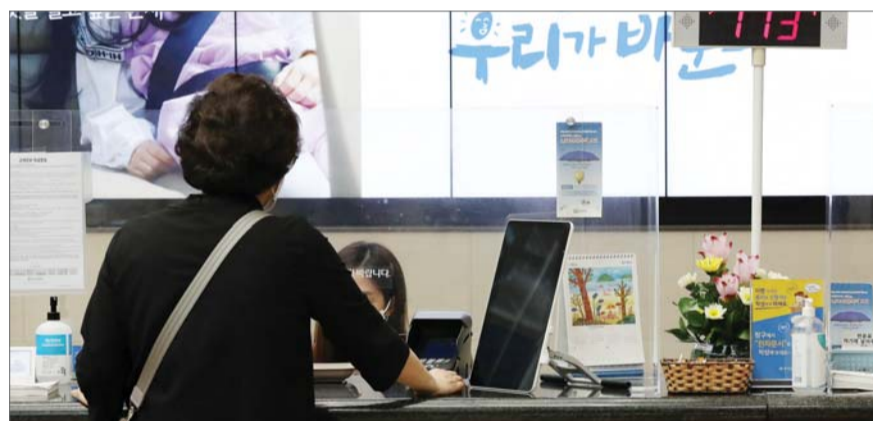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종합금융회사의 자산관리계좌(CMA) 수익률이 최고 연 3~3.6%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중은행·지방은행이 판매하는 파킹통장(고금리 수시입출금통장)의 금리인 연 2~3.5%보다 높은 수준이다.

CMA는 증권사·종합금융회사가 내놓은 종합자산관리계좌다. 신용등급이 높은 공공채·회사채·어음·환매조건부채권(RP) 등에 투자해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면서도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다.

통상 CMA는 연 3%대 중반의 수익률을 제공해 최고 연 4%의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보다 수익률이 낮지만, 까다로운 우대금리 요건이 없고, 파킹통장보다 최고금리를 제공하는 예치금 구간이 넓다.

은행권 수신 금리 인하 추이에 따라 파킹통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CMA가 수익률 측면에서도 파킹통장의 금리를 앞지르게 된 것.

금융권 관계자는 "파킹통장을 포함한 수신 상품 금리는 통상 은행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인 금융채의 금리를 따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

라 움직인다"며 "최근 금융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파킹통장 금리도 함께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금융채(AAA, 1년물 기준) 금리는 연 3.48%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록한 3.71%에서 0.23%포인트(p) 하락했다.

은행권 수신 금리 하락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5대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의 요구불예금 규모는 총 638조831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록한 616조7450억원 대비 22조867억원(3.6%) 늘었다.

요구불예금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대신 이자를 거의 지급하지 않는 수시입출금상품이다.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만큼 대기성 자금으로 취급된다.

시중에 대기성 자금이 늘어나면서, CMA로 불리는 자금 규모도 빠르게 늘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CMA 계좌는 3942만6000개에 달했다. 지난해 말 계좌 수인 3803만

5000개와 비교하면 6개월 만에 약 140만개 증가했다.

국내 증권사·종합사가 판매 중인 CMA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은 최고 연 3.6%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우리종합금융의 '우리WON CMA Note'다.

'우리WON CMA Note'는 예금자 보호를 제공하는 증금형 상품으로 별도의 조건 없이 1000만원 이하의 예치금액에는 연 3.6% 수익률을, 1000만원 초과 금액에는 연 3.2%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다만 변동 금리를 채택하고 있어, 향후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의 'CMA-RP네이버통장'이 최고 연 3.55%의 수익률을 제공해 뒤를 이었다.

'CMA-RP 네이버통장' 별도의 조건 없이 1000만원 이하의 예치금액에 연 3.55% 수익률을, 1000만원 초과 금액에는 연 3%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RP(환매조건부채권)형인 만큼 약정기간 동안 고정 금리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안승진 기자 asi1231@

"법인세·소득세 앱으로 납부하세요"

케이뱅크 '공과금 내기' 서비스
지방세 이어 국세 수납도 추가

앞으로는 케이뱅크 앱에서 각종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등을 낼 수 있게 된다.

케이뱅크는 '공과금 내기' 서비스에 지방세에 이어 국세 수납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케이뱅크는 2017년 지방세와 생활요금을 조회하고 낼 수 있는 '공과금 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여기에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등 국고금 고지서를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세금

납부 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국세 수납서비스는 케이뱅크 앱에서 '전체' 탭을 선택한 뒤 '편의' 중 '공과금 내기'에 들어가면 된다.

'나의 공과금'에서 ▲자주 쓰는 지로 번호 관리 ▲납부내역 조회·취소 ▲자동납부 조회·등록·해지 기능을 이용하면 한눈에 공과금 관리를 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기존 서비스에 국고수납 업무를 추가해 케이뱅크 앱에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의 영역을 확대했다"며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더욱 편리한 생활 속 케이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KB국민인증서 가입자 수 1500만명 돌파

KB국민은행은 KB국민인증서의 가입자 수가 1500만명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KB국민인증서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 기기와 신분증만 있으면 영업점 창구 방문 없이 바로 발급할 수 있는 금융권 대표 인증서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청약홈 ▲한국전력공사 등 700여개 공공·민간기관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잡한 암호 없이 패턴·지문·페이스 ID 중 선택해 간편하게 로그인 가능하며 6자리 간편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빠르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편리함과 동시에 철저한 보안과 안전성도 확보하고 있다. 해킹 및 탈취로

부터 안전하도록 휴대폰 앱의 보안 영역에 인증서를 저장하는 방식을 지원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업무를 처리 시 모바일 OTP 등 추가인증 절차를 마련해 보안을 강화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2030세대 및 여성 고객을 위한 민간 플랫폼과의 제휴 확대 ▲디지털 인증확산센터 등 정부의 민간 인증서 이용 촉진 사업 참여 ▲고객에게 유용한 공익정보 전자문서 발송 등 서비스 영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인증서를 통해 고객의 일상에 더 큰 편의와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와 융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